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226호 1판 (음력 3월 7일)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민주당 바람 거센 광주·전남…민생당 후보들도 '이낙연 마케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찾아 전남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총선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D-16…선거전 본격화

민주당, 18석 전체 석권 목표 … '텃밭 탈환' 강한 의지

민생당, "문재인 정권·차기 대선 승리위해 민생당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인물론과 경쟁론'을 내세운 민생당 후보,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는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바람에 맞서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민생당 후보들의 선전 여부가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행을 택한 현역 의원들의 돌풍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민주당은 경선과정에서 후보 들 간 '혼탁 경선'이라는 생채기를 안고 있지만, 높은 정당 지지율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18석 전부를 석권하겠다는 '텃밭 탈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18석 중 단 1석만 건지는 '대참패'를 맛봤다. 따라서 민주당은 남은 선거일까지 당 조직 등을 최대한 가동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총선 지원 첫 유세로 순천을 방문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전남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주중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힘을 보태고,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정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민주당이 여전히 과열 경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이번 총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인 민생당 후보들은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수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생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은 만큼 현 정부의 성공과 '이 전 총리 대통령 만들기'를 내세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21대 총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로,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밝혔고,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갑 김동철 의원은 선거사무실에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이낙연과 50년 막역지기 김동철'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는 정치적 경륜 등 자신들의 인물론에 더해 호남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문재인·이낙연 마케팅'을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들도 그동안 다져온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승리를 일궈낸다는 기세다.

이런 가운데 순천 민심을 거스른 선거구획정과 전략공천, 민주당 공천잡음 등으로 무소속 출마가 잇따랐던 전남 동부권 무소속 벨트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갑 이용주, 여수을 권세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노관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후보는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용주·정인화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노관규 후보는 전 순천시장을 지내면서 조직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 누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전남 동부권에 무소속 깃발을 꽂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광주·전남지역 총선은 민주당의 강한 바람 속에 민생당과 무소속으로 나선 현역 국회의원의 생환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특히 민주당의 경선이 너무나 과열 혼탁했던 만큼 지역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이번 총선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경쟁률 광주 5.25대 1, 전남 4.5대 1

광주 42·전남 45명 후보등록

4·15 총선 후보 등록 결과,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명이 등록해 5.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45명이 등록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결과를 보면 동남구갑 4명, 동남구을 5명, 서구갑 5명, 서구을 5명, 북구갑 5명, 북구을 8명, 광산구갑 5명, 광산구을 5명이 각각 등록했다. 경쟁률은 지난 20대 총선의 5.38대 1보다 낮은 5.25대 1을 기록했다.

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2명, 민생당 7명, 정의당 6명, 민중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8명, 기독자유통일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5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지난 20대 총선의 5.2대 1보다 낮은 4.5대 1이었다. 목포 4명, 여수갑 4명, 여수을 4명, 순천·광양·곡성·구례갑 8명, 순천·광양·곡성·구례을 7명이다. 또 나주·화순 3명, 고흥·보성·장흥·강진 3명, 해남·완도·진도 3명, 영암·무안·신안 4명, 담양·함평·영광·장성 5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명, 통합당 6명, 민생당 6명, 정의당 4명, 우리공화당 1명, 민중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기독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8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초중고 온라인 개학 논의 … 내일까지 결론

"4월 6일 등교 어렵다"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과 관련해 등교 여부와 온라인 개학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면〉

다음 달 6일 개학이 예정돼있으나,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등교는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무게를 두고 온라인 개학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당정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0~31일 중 개학 여부와 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등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공감대가 있다).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하느냐, 상황에 따라 학교급별로 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역별 개학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대입과 연계돼있어 어느 지역은 개학하고 어느 지역은 개학하지 않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전문가 판단은 지역적으로 대구는 학생 환자가 200명이 넘어 등교 개학을 하기 어려운데, 대구가 어려우면 다른 모든 지역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유럽·미국 입국자 광주 생활치료센터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관련기사 2면〉

정 총리는 이날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이날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으로 판명받더라도,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2주간 격리하기로 했다.

유럽·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광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다. 유럽·미국 외 국가에서 입국한 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택 격리하도록 했다. 시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생활치료센터 격리 시설을 제공한다. 시는 또 지난 12일 이후 입국자 중 보건당국의 능동 감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는 625명(미국 199명·유럽 157명·기타 다른 지역 2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선 광주·전남 후보자 얼굴 ▶5면
총선 서울·경기·인천 출마자 ▶6면
재충전 KIA, 다시 엔트리 경쟁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광역시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제1차 민생안정대책(3/15)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
지원대상 1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無담보·無이자 2.9%
無보증료 0.8%
신청방법 광주, 하나, 신한은행 등 9개 은행 지점
1

제2차 민생안정대책(3/19)
공공요금 동결 등 3대 경감 대책
1. 공공요금·시설이용료 전면동결 (버스,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9대 공공요금)
2. 시 공유재산 시설임대료인하 (80% 감면)
3.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고 50% 감면 (최대 100만원)
2

제3차 민생안정대책(3/23)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구분	지원액	지원요건	공통여건
가계긴급 생계비	가구별 30~5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장은 광주시 소재
특수고용직 생계비	최대 100만원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자	- 신청자는 2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광주시 주민등록자
실직·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은 광주시 소재

3

제4차 민생안정대책(3/26)
전국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1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10%) 전액 지원
지원기간 2020. 04. 01. ~ 06. 30 (3개월)
신청방법 사업주가 광주고용노동청에 신청
4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를 참고 부탁드립니다.